

국제경제관리관,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기적 거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주중 점검할 계획
- 외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참가자들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9.(화) 한국은행 및 외환·증권·거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6.7.(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 / 장소) '26.6.9일(화) 14: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주재)
 [전문가]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 서은종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상호 HSBC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석길 JP모건은행 서울지점 이코노미스트

먼저, 문 관리관은 시장전문가들로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NDF 거래 현황 및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금일 1/4분기 우리 GDP 잠정치 상황 등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F) 가동 등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수출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며,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문 관리관은 참가자들로부터 NDF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원화결제 시스템 운영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흡수하고, 나아가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만, 정부가 현재의 시장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주요 거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수출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조만간 관계 기관이 실제 현장 점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 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아울러,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투기적 거래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담당자	사무관
		담당자	사무관

